


< 순색의 그림 안에 짙은 순수를, 명쾌한 글 안에 사유거리를 >

건조한 어른들 세계를 아이들 이야기만큼 화기애애하게 달궂주는 노래도 없습니다. 얼마 전 지인이 들려준 지인의 조카 이야기도 그런 이야기 중 하나더군요. 조카는 초등학교 6학년 2학기를 보내는 중입니다. 내년이면 중학생이 될 텐데, 아이는 말은 안 했지만 마지막 남은 학기에 꼭 학교 임원을 해보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그 소망이 얼마나 간절했는지 “자기 자신을 추천해도 좋아”라는 선생님 말씀에 대뜸 손을 들었습니다. 가족들은 “나 부회장 됐어요. 기쁘지 않아요?”라는 전화 한통에 한바탕 웃었다고 하더군요. 아무리 세상이 바뀌었다지만 아이들 만큼 솔직한 생명체가 또 있을런지요. 그림으로 치자면 아이들은 빨강, 파랑, 노랑 삼원색처럼 그 어떤 색도 더하지 않은 순색입니다.

그림책 작가를 소개하는데 느닷없이 솔직, 순수 타령이냐고 하실 분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고백하자면 지금 소개할 에릭 바튀를 말하기 가장 좋은 방법은 솔직, 순수한 색채, 즉 ‘원색의 사용’입니다. 에릭 바튀는 색채를 겹쳐서 새로운 색을 만들어내는 데 인색한 작가입니다. 탁한 느낌을 최소화하기 위해 색을 섞는 것을 신중하게 검토한다는 말이 더 정확하겠네요. 또한 공간을 널찍하게 활용해 시원스런 그림을 내놓고 선을 최대한 단순하게 사용합니다. 원색이나 무채색의 과감한 사용 덕에 그의 그림책은 “표지부터 강렬하다”는 평을 자주 듣습니다.

에릭 바튀는 1968년에 프랑스에서 태어났습니다. 본래 전공은 법학이었고, 학업을 포기한 후엔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지요. 그리고 1993년부터 3년 동안 리옹에 있는 에밀 콜 대학에서 드로잉과 미술 전반을 공부합니다. 다른 작가들에 비해서 비교적 늦게 그림을 시작했기 때문일까요? 그는 노력과로 손꼽힙니다. 드로잉을 수십 번 반복하면서 어떤 그림을 그릴지 구상하고, 색을 칠할 때에도 길게 고민하는 습관을 갖고 있다고 하더군요. 그와 오랜 기간 작업을 함께 한 프알스 보렘프레스의 편집장은 그를 신중하고 노력을 많이 하는 사람, 부끄러움을 많이 타고 언론의 질문에 항상 긴장하는 사람이라 말했습니다. 그만큼 언론플레이에 약한 비속물적인 인물이란 것을 드러내주는 대목입니다.



선과 색채의 남용을 절제한 에릭 바튀의 그림책은 풍부한 은유를 숨기고 있습니다. 《빨간 고양이 마투》에서 뚱뚱한 빨간 고양이 마투가 유난히 큰 몸으로 새알을 품은 채 행여 깨질까 조심조심하는 모습을 보면 강렬함과 동시에 묘한 모성이 느껴집니다. 또한 《작은 식물》에서 넓게 펼쳐진 여백과 여백에 적힌 잠언 같은 바튀의 글은 잠시 숨 쉴 여유를 전해줍니다. 2002년 볼로냐아동도서전에서 ‘올해의 작가’로 선정, 《빨간 고양이 마투》로 알퐁스 도데 어린이 문학상을 수상한 에릭 바튀. 순색이 전하는 강한 임팩트, 간결한 문장이 던져주는 다양한 사유의 공간을 바튀의 책에서 만나보세요. 

김청연 기자

《빨간 고양이 마투》

에릭 바튀 글·그림 | 최정수 옮김 | 문학동네 | 28쪽 | 값 8,000원  
먹고 먹히는 관계에서 우정을 나누는 친구로 발전한 고양이, 새의 이야기. 바튀 특유의 유머가 녹아든 책이다.



《내 나무 아래에서》

에릭 바튀 글·그림 | 최정수 옮김 | 문학동네 | 24쪽 | 값 8,000원  
사계절의 변화를 겪은 나무가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던진다. 극도로 절제된 간결한 글이 무척 인상적이다.



《작은 식물》

에릭 바튀 글·그림 | 이수은 옮김 | 달리 | 24쪽 | 값 6,500원  
생명의 성장을 간결하면서도 깊이 있게 보여주는 책. 색종이를 오려붙여 만든 그림이 인상적이다.



《실베스트르》

에릭 바튀 글·그림 | 함정임 옮김 | 문학동네 | 24쪽 | 값 8,800원  
회색도시에 푸른 생명의 나무를 심는 요정 이야기. 자연과 생명의 소중함을 새삼 깨닫게 해주는 이야기다.



《하얀 늑대처럼》

에릭 바튀 글·그림 | 양진희 옮김 | 교학사 | 40쪽 | 값 8,500원  
독재자의 횡포와 서늘한 최후를 함축적인 문장, 그림으로 보여준다. 타인을 이해하는 법을 깨닫게 해주는 책.



《특별한 손님》

에릭 바튀 글·그림 | 이진경 옮김 | 행복한아이들 | 26쪽 | 값 8,000원  
다른 나라의 왕이 방문한다는 소식에 손님 맞을 준비를 단단히 하는 바질 왕. 인생의 진정한 풍요를 알게 해주는 책.

